

## 직업능력개발

### I. 직업능력개발 정책

#### □ 「제2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12.10월~2017년)」 발표(2012.9.25.)

- 정부는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하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제2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12.10월~2017년)」을 발표
- 제2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핵심노동인구 감소, 신기술 융·복합화에 따른 산업구조·기업특성 다변화, 고속권 수요 증가와 중위속권 수요 유지의 중장기인력수급 변화, 노동시장 격차 등 향후 5년간의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
-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역할을 ‘성장과 통합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규정
  -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근로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성장과 혁신의 경제를 견인
  -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일을 통한 복지’,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
- 제2차 기본계획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하는 능력중심 사회’를 비전으로 3대 정책목표 아래 4개 분야 68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

비전

##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하는 능력중심 사회

목표

- 녹색·첨단·뿌리분야 기업 맞춤형 숙련인력 20만 명 양성
- 직업관련 학습참여율 20% 달성
-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150만 명)

### 정책과제

#### 산업과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

- ① 적극적인 인력양성·공급으로 산업발전을 견인
- ② 기업의 숙련수준 고도화로 혁신과 성장지원
- ③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직업능력개발 강화
- ④ 산업과 기업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전달체계 구축

#### 열린 고용과 평생학습시대를 촉진

- ① 직업교육·직업훈련 융복합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 ② 양성된 인재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 ③ 일-학습 병행으로 노동시장내 경쟁력 지속
- ④ 숙련장려와 자격제도로 능력중심 문화 구축

#### 숙련형성과 내일을 통한 사회통합

- ① 고령자·여성 등 잠재인력 개발 극대화
- ② 취약계층 대상별 특성화 지원으로 숙련 형성 촉진
- ③ 직업능력개발 강화로 구직자의 다시 일하기 촉진
- ④ 취약계층 지원 전달체계 효율성 제고

#### 공공과 민간의 조화를 통한 건전한 훈련시장 육성

- ① 직업능력개발 혁신 네트워크 구축
- ② 공공 직업능력개발 기관 중장기 위상 정립
- ③ 민간 직업훈련의 육성
- ④ 부처간 협력을 통한 재정지원의 효율성 확보

\* 직업관련 학습참여율: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자/만25세~만64세 성인 (OECD 평균 '07년 28.3%, 한국 '11년 16.0%)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2.9.25.),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하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제2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전문)」.

□ **고용노동부, 10월부터 '새로운 기업대학(가칭)' 지원 확대(2012.10.9.)**

○ 추진배경

- 현행 사내대학은 학위와 연계되어 설립·운영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기가 쉽지 않음. 이에 현장의 고숙련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 자율적인 고숙련 교육훈련체제의 활성화가 필요
-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기업 현장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아 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열린 고용' 및 '선취업-후학습' 환경을 정착할 제도의 도입이 필요

○ 지원대상

- 채용예정자 또는 재직근로자 대상으로 연평균 300시간 이상(재직자만 대상인 경우 100시간 이상) 직무와 관련된 고숙련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 지원내용

-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드는 수강료의 80%(중소기업은 100%) 지원
-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저임금의 120%(중소기업은 통상임금)까지 임금 지원
- 훈련시설, 장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인프라 구축비용을 연간 최대 20억 원 이내에서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고용노동부, 「직업교육·훈련 연계·협력 협약」 체결 (2012.10.30.)**

-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는 고졸 시대·열린 고용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전능력과 변화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력을 갖춘 현장 맞춤형 실전·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 협약 체결 목적

-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을 현장실무형 인재로 양성, 노동시장으로의 순조로운 이행과 후진학(후학습) 등 경력개발을 지원
- 이를 통해 고졸 시대·열린 고용의 조속한 정착을 도모

○ 추진 과제

- 초·중등 학생의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진로교육 활성화
- 현장 중심 고교 직업교육 혁신 모델 확산
- 직업교육·훈련 교사의 교류 확대 및 현장 역량 강화
- 직업훈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교 현장학습 지원
-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대책 효율적 추진
- 일-학습 병행을 위한 후진학(후학습) 기반 구축
-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 **농림수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연계, 중장년층 대상 귀농창업과정 개설 (2012.10.19.)**

-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맞물려 제2의 인생설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귀농창업과정을 개설
- 귀농창업과정은 10일(1일 4시간, 총 40시간) 동안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교육수료 후에는 상담 및 훈련수당 지급 등 소정의 혜택이 부여됨.

○ 참가자격

-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만 30~64세의 최저생계비 250% 이하(4인 가족 의료보험 14만 원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6개월 이상 실직상태 등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제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막(2012.9.4.)

-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발굴하는 기술·기능인 최고의 경연장이자 축제의 장인 『제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막식이 대구광역시 EXCO에서 열림.
  - 고용노동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과 대구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폴리메카닉스 등 48개 직종에서 1,876명의 선수가 참가
- 이번 대회의 특징은 기술·기능을 겨루는 차원에서 나아가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기능경기대회’를 목표로 국민이 숙련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

□ 여성가족부, ‘개도국 여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교육 초청연수’ 실시 (2012.9.4., 2012.10.12.)

- 여성가족부는 개도국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자 2010년부터 ‘개도국 여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교육 초청연수’ 사업을 실시
  - 지금까지 개도국 32개국 93명의 공무원 등이 한국의 여성 직업능력개발 정책연수에 참여
- 9월 5일부터 9월 22일까지는 아시아 지역 10개국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 실시
  - 참가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아프리카·중남미 지역 10개국 여성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연수 실시
  - 참가국: 나이지리아,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

아, 과테말라, 콜롬비아, 파라과이, 가나

○ 주요 연수 내용

- 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시설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다양한 기관의 현장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 직업능력개발 정책모델을 학습
- 각국의 여성 직업능력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정책 모델로 삼아 국가별 특성에 맞는 여성 직업정책 설계 워크숍 진행

□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9.28.)

○ 주요 내용

- 자격 신설: ‘온실가스관리기사’,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그린전동자동차기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등 5개
- 직무 분야 유사 자격 통합: ‘보일러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종목은 ‘에너지관리산업기사’로 통합, ‘인쇄기능사’, ‘사진제판기능사’ 종목은 ‘인쇄기능사’로 통합
- 종목명칭 변경: ‘금속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기사’, ‘철도보선기사’ 등 10개 자격은 산업현장에서 수행되는 직무내용에 맞게 명칭 변경
- 시험과목 정비: ‘누설비파괴검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 32개는 시험과목 정비

○ 이번에 정비되는 자격 종목은 입법절차가 마무리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된 이후 1년 동안 시행 유예기간을 갖고 2014년부터 적용될 예정

## II. 직업능력개발 통계

### ◆ 청년층(15~29세)의 직업교육(훈련) 실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12.5.) 결과

□ 청년층 인구 중 직업교육(훈련) 경험자 비중은 15.1%로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함.

- 직업교육(훈련) 경험자의 경험 시기는 ‘재학/휴학 중’이 50.8%로 가장 많고, ‘졸업/중퇴 후’는 37.7%, ‘재학/휴학 중 및 졸업/중퇴 후 모두’는 11.6%임.

표 1. 청년층(15~29세)의 직업교육(훈련) 경험자 비율

(단위: %, %p, 전년 대비)

	2008. 5	2009. 5	2010. 5	2011. 5	2012. 5	
						증감
경험 있음	15.2	15.8	15.8	15.3	15.1	-0.2
- 재학/휴학 중	46.2	48.6	50.1	50.6	50.8	0.2
- 졸업/중퇴 후	41.8	39.9	40.1	38.6	37.7	-0.9
- 재학/휴학 및 졸업/중퇴 후 모두	12.0	11.5	9.8	10.8	11.6	0.8
경험 없음	84.7	84.2	84.1	84.7	84.8	0.1
미상	0.1	0.1	0.0	0.0	0.0	0.0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성별로 보면, 여자의 직업교육(훈련) 경험자 비중은 18.1%로 남자(12.1%)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5~29세의 경험자 비중이 25.9%로 가장 높고,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실업자가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재학/휴학생보다는 졸업/중퇴자의 경험자 비중이 높는데, 대졸 이상의 졸업/중퇴자가 32.8%로 가장 높았음.

표 2. 청년층(15~29세)의 특성별 직업교육(훈련) 경험자 비율

(단위: %, %p, 전년 대비)

		2008, 5	2009, 5	2010, 5	2011, 5	2012, 5		
							증감	
전체		15.2	15.8	15.8	15.3	15.1	-0.2	
성별	남자	12.3	13.3	13.1	12.7	12.1	-0.6	
	여자	18.0	18.2	18.4	17.8	18.1	0.3	
연령	15~19세	1.8	1.8	1.8	1.9	2.3	0.4	
	20~24세	16.7	17.0	18.2	16.6	17.1	0.5	
	25~29세	25.4	26.7	26.7	26.7	25.9	-0.8	
학력1	고졸 이하	9.6	10.2	10.1	9.4	9.2	-0.2	
	전문대졸	24.4	23.9	23.9	22.5	23.9	1.4	
	대졸 이상	29.4	31.1	32.0	32.4	31.1	-1.3	
학력2	재학/휴학	고교 이하	0.8	1.0	1.0	0.8	1.2	0.4
		전문대	9.6	10.5	7.6	8.4	7.8	-0.6
		대학 이상	10.6	11.6	12.3	12.7	10.7	-2.0
	졸업/중퇴	고졸 이하	19.7	21.3	21.0	18.4	19.7	1.3
		전문대졸	24.4	23.9	23.9	22.5	23.9	1.4
		대졸 이상	30.5	32.2	33.7	33.8	32.8	-1.0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22.4	22.9	23.8	22.9	23.1	0.2	
	실업자	27.6	25.5	22.7	30.4	30.7	0.3	
	비경활	9.0	9.8	9.5	8.8	8.2	-0.6	

주: 학력2에서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중퇴의 경우 고졸이하에 포함.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청년층 직업교육(훈련) 경험자들이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기관으로는 사설학원이 62.6%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기관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13.0%),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7.1%) 순임.

표 3. 청년층(15~29세)의 주요 직업교육(훈련) 기관

(단위: %, %p, 전년 대비)

	2008. 5	2009. 5	2010. 5	2011. 5	2012. 5	증감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	8.4	8.5	8.3	7.1	7.1	0.0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9.7	11.6	12.4	12.8	13.0	0.2
비영리 법인 및 단체	2.3	4.5	4.3	3.2	3.9	0.7
대학 및 대학원	2.5	3.2	3.5	5.2	6.0	0.8
평생교육시설	1.1	0.9	1.6	1.3	1.6	0.3
사설학원	69.3	65.6	65.0	64.9	62.6	-2.3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3.6	3.6	3.3	4.2	4.4	0.2
기타	3.1	2.0	1.6	1.2	1.4	0.2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시기별로 살펴보면, ‘재학/휴학 중’에 받은 경우에는 사설학원(65.4%), 대학 및 대학원(10.2%), 비영리 법인 및 단체(6.1%)의 순임.
  - ‘졸업/중퇴 후’의 경우에는 사설학원(55.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26.0%),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10.5%)의 비중이 높음.
  - ‘재학/휴학 중 및 졸업/중퇴 후 모두’의 경우에는 사설학원(73.7%)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9.2%)의 비중이 높음.

표 4. 청년층(15~29세)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시기별 주요 직업교육(훈련) 기관

(단위: %, %p, 전년 대비)

직업교육(훈련) 참여 시기	직업교육(훈련) 기관	2008. 5	2009. 5	2010. 5	2011. 5	2012. 5	
							증감
재학/휴학 중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	5.9	4.4	5.0	5.0	5.7	0.7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5.4	6.1	5.5	5.6	4.1	-1.5
	비영리 법인 및 단체	3.8	7.5	7.0	5.5	6.1	0.6
	대학 및 대학원	3.8	5.5	5.3	8.7	10.2	1.5
	평생교육시설	0.7	0.5	1.3	0.8	1.4	0.6
	사설학원	71.6	68.8	70.6	68.7	65.4	-3.3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3.6	4.3	3.1	3.9	4.9	1.0
	기타	5.3	2.9	2.1	1.9	2.1	0.2
졸업/중퇴 후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	11.8	13.6	12.6	10.5	10.5	0.0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14.0	18.9	22.3	24.2	26.0	1.8
	비영리 법인 및 단체	1.1	1.7	1.2	0.6	1.1	0.5
	대학 및 대학원	0.4	0.5	1.5	0.8	1.0	0.2
	평생교육시설	1.1	1.3	2.4	1.8	1.7	-0.1
	사설학원	66.3	60.0	55.8	58.1	55.2	-2.9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4.2	3.0	3.4	3.7	4.0	0.3
	기타	1.1	1.0	0.8	0.3	0.5	0.2
재학/휴학 및 졸업/중퇴 후 모두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	6.4	8.1	7.0	5.3	2.6	-2.7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11.3	10.2	7.5	6.1	9.2	3.1
	비영리 법인 및 단체	1.0	1.2	2.5	1.8	3.4	1.6
	대학 및 대학원	4.8	3.0	2.7	4.9	3.6	-1.3
	평생교육시설	2.5	1.0	0.4	1.8	2.3	0.5
	사설학원	70.8	71.8	73.5	71.7	73.7	2.0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1.9	2.8	3.8	7.4	4.1	-3.3
	기타	1.3	1.9	2.6	1.1	1.1	0.0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고령층(55~79세)의 직업교육(훈련) 실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012.5) 결과

□ 고령층의 직업교육(훈련) 참여율은 2.2%로 전년과 동일함.

○ 성별로는 남자가 2.8%로 여자(1.7%)보다 높음.

- 연령별로는 55~59세가 3.3%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업교육(훈련) 참여율은 감소함.

-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이 3.3%로 가장 높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교육(훈련) 참여율이 증가함.

표 5. 고령층(55~79세)의 인적속성별 직업교육(훈련) 참여율

(단위: %, %p, 전년 대비)

		2008. 5	2009. 5	2010. 5	2011. 5	2012. 5	
							증감
전체		2.6	1.7	1.9	2.2	2.2	0.0
성별	남자	3.1	1.9	1.8	2.6	2.8	0.2
	여자	2.1	1.5	2.0	1.8	1.7	-0.1
연령	55~59세	3.6	2.7	3.4	3.4	3.3	-0.1
	60~64세	3.2	1.9	1.8	2.3	3.0	0.7
	65~69세	1.8	1.3	1.4	1.8	1.6	-0.2
	70~74세	1.5	0.7	0.8	1.4	0.9	-0.5
	75~79세	1.4	0.8	0.5	0.5	0.8	0.3
학력	중졸 이하	1.8	1.3	1.5	1.6	1.7	0.1
	고졸	4.0	2.4	2.6	2.9	3.0	0.1
	전문대졸 이상	4.9	2.7	3.0	3.8	3.3	-0.5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 경제활동상태별로 살펴보면, 실업자가 7.5%로 직업교육(훈련) 참여율이 가장 높음.

- 취업자의 직업교육(훈련) 참여율은 3.4%인데, 이 중 임시직이 5.4%로 가장

높고, 상용직(4.6%), 고용주(3.3%)의 순으로 나타남.

- 장래 근로 희망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희망자가 3.5%로 비희망자(0.3%)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6. 고령층(55~79세)의 경제활동상태 및 근로희망 여부별 직업교육(훈련) 참여율

(단위: %, %p, 전년 대비)

		2008. 5	2009. 5	2010. 5	2011. 5	2012. 5	
							증감
전체		2.6	1.7	1.9	2.2	2.2	0.0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3.1	2.5	2.6	3.1	3.4	0.3
	상용직	4.2	2.7	3.3	3.9	4.6	0.7
	임시직	5.8	4.7	5.0	5.5	5.4	-0.1
	일용직	2.7	3.8	3.9	1.9	2.1	0.2
	고용주	2.4	1.6	1.0	2.2	3.3	1.1
	자영자	2.4	1.5	1.3	2.5	2.5	0.0
	무급가족 종사자	0.6	1.2	0.5	1.4	0.8	-0.6
	실업자	4.4	5.5	7.6	7.5	7.5	0.0
	비정활	2.0	0.8	1.0	1.0	0.8	-0.2
장래 근로 희망	희망	3.7	2.7	2.9	3.4	3.5	0.1
	비희망	1.0	0.4	0.3	0.5	0.3	-0.2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 고령층 직업교육(훈련) 참여자들이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기관으로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36.7%로 가장 많음.

- 그 밖에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23.1%)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11.7%), 비영리 법인 및 단체(11.6%)의 비중이 높음.

표 7. 고령층(55~79세)의 주요 직업교육(훈련) 기관

(단위: %, %p, 전년 대비)

	2008. 5	2009. 5	2010. 5	2011. 5	2012. 5	
						증감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	17.2	24.3	21.8	21.4	23.1	1.7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8.6	14.1	18.6	16.0	11.7	-4.3
비영리 법인 및 단체	9.6	18.5	11.5	11.2	11.6	0.4
대학 및 대학원	2.5	2.2	2.1	1.4	1.2	-0.2
평생교육시설	2.9	3.8	2.0	2.2	3.7	1.5
사설학원	5.4	10.6	19.2	9.8	7.9	-1.9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14.1	20.2	21.1	30.4	36.7	6.3
기타	39.6	6.3	3.6	7.6	4.2	-3.4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 경제활동상태별로 직업교육(훈련) 기관을 살펴보면, 취업자의 경우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43.2%),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23.0%), 비영리 법인 및 단체(12.2%)의 비중이 높음.
- 실업자는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45.7%)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17.8%)의 비중이 높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사설학원(21.2%)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20.5%),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19.1%)의 비중이 높음.

표 8. 경제활동상태별 고령층의 주요 직업교육(훈련) 기관

(단위: %, %p, 전년 대비)

경제활동상태	직업교육(훈련) 기관	2008. 5	2009. 5	2010. 5	2011. 5	2012. 5	
							증감
취업자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	17.3	24.0	22.1	20.3	23.0	2.7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7.4	10.6	16.3	10.6	9.6	-1.0
	비영리 법인 및 단체	13.8	20.2	13.0	13.1	12.2	-0.9
	대학 및 대학원	2.9	1.7	1.7	1.4	1.0	-0.4
	평생교육시설	2.4	4.5	2.1	1.1	1.9	0.8
	사설학원	4.6	8.6	17.0	8.1	4.9	-3.2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21.3	25.8	25.7	36.8	43.2	6.4
	기타	30.3	4.6	2.1	8.7	4.3	-4.4
실업자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	27.5	45.8	42.8	44.3	45.7	1.4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26.1	6.9	24.1	40.0	17.8	-22.2
	비영리 법인 및 단체	0.0	9.6	0.0	0.0	0.0	0.0
	대학 및 대학원	0.0	0.0	0.0	0.0	0.0	0.0
	평생교육시설	0.0	0.0	0.0	0.0	11.9	11.9
	사설학원	0.0	30.0	27.6	10.2	12.5	2.3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9.2	7.8	5.6	5.5	12.1	6.6
	기타	37.1	0.0	0.0	0.0	0.0	0.0
비경제활동 인구	공공단체 운영 훈련기관	16.8	21.6	17.6	20.8	19.1	-1.7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9.8	25.9	23.7	29.3	20.5	-8.8
	비영리 법인 및 단체	3.4	14.8	9.5	6.9	11.0	4.1
	대학 및 대학원	2.1	4.0	3.5	1.8	2.3	0.5
	평생교육시설	3.7	2.5	2.1	6.2	10.3	4.1
	사설학원	7.0	13.3	23.8	15.4	21.2	5.8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2.9	5.4	11.6	13.9	10.7	-3.2
	기타	54.4	12.4	8.2	5.7	4.9	-0.8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개요 및 설문 문항〉

- 조사대상: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 가구원 중 15~34세 연령층에 속하는 가구원
- 조사주기: 2002년 6월에 제1차 부가조사를 실시한 이래 2003년부터는 매년 5월에 조사를 실시
- 교육훈련 관련 설문 문항

45. 학교교육 외에 취업을 위하여 학원에 다니거나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                             |
|----------------|-----------------------------|
| 1. 없음(☞ 47번으로) | 2. 재학/휴학 중 받았음              |
| 3. 졸업/중퇴 후 받았음 | 4. 재학/휴학 중 및 졸업/중퇴 후 모두 받았음 |

※ '직업교육(훈련)'은 학교 내 정규교과과정 실습 이외의 현장실습, 위탁교육, 공공/민간직업훈련기관, 인턴 등을 의미

46.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기관은 다음 중 주로 어느 곳이었습니까?

- |   |   |
|---|---|
| 1. 공공단체운영훈련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기능대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   |
| 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민간직업전문학교 등)                           | 3.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 4. 대학 및 대학원   | 5. 평생교육시설                                       |
| 6. 사설학원   | 7.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소속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
| 8. 기타   |   |

※ 훈련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는 직업훈련에 소요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개요 및 설문 문항〉

- 조사대상: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 가구원 중 55~79세 연령층에 속하는 가구원
- 조사주기: 2005년 5월에 제1차 조사를 실시한 이래 매년 5월에 부가조사를 실시
- 교육훈련 관련 설문 문항

67. 지난 1년간 취업을 위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있었음

↳,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기관은?

- |  |   |
|--|---|
| 1. 공공단체운영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기능대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   |
| 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민간직업전문학교 등)                            | 3.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 4. 대학 및 대학원  | 5. 평생교육시설   |
| 6. 사설학원  | 7.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
| 8. 기타  | ◆ 9. 없었음  |

※ 훈련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는 직업훈련에 소요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 고용보험 동향

- 2012년 9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154만개소로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
  - 피보험자는 1,10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함.

표 9.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 현황

(단위: 개소, 명, 건, %)

	2011.9	2012.8		2012.9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 사업장	1,495,764	1,574,237	1,540,237	44,473	3.0	-34,000	-2.2
○ 피보험자(순수)	10,565,617	11,015,969	11,067,737	502,120	4.8	51,768	0.5
남 자	6,510,743	6,713,889	6,731,531	220,788	3.4	17,642	0.3
여 자	4,054,874	4,302,080	4,336,206	281,332	6.9	34,126	0.8
취득자	470,201	466,728	476,997	6,796	1.4	10,269	2.2
상실자	425,525	429,903	431,618	6,093	1.4	1,715	0.4

주: 피보험자 통계는 상시근로자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2년 9월 고용보험통계 현황.

- 직업능력개발사업 건수는 3만 1천 건으로 전년동월대비 9.9% 증가
  - 세부 사업별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18.2%), 유급휴가훈련(26.9%), 수강지원금(18.3%)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는 51.1% 감소함.

표 10. 직업능력개발사업 건수 현황

(단위: 건, %)

	2011.9	2012.8		2012.9		2012.9월 누계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전체	28,565	33,228	31,383	9.9	-5.6	305,058
직업능력개발훈련	14,313	18,332	16,917	18.2	-7.7	157,146
유급휴가훈련	238	406	302	26.9	-25.6	3,059
수강지원금	10,530	12,741	12,461	18.3	-2.2	124,967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	3,484	1,749	1,703	-51.1	-2.6	19,886

주: 1) 정부에서 위탁한 사업의 지원실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일반회계 등을 포함하는 타기관의 통계수치와 다를 수 있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2년 9월 고용보험통계 현황.

- 직업능력개발사업 금액은 275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8% 증가
  - 세부 사업별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20.4%)과 수강지원금(25.3%)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유급휴가훈련(-44.1%)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19.7%)는 감소함.

표 11. 직업능력개발사업 금액 현황

(단위: 백만 원, %)

	2011.9	2012.8	2012.9		2012.9월 누계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전체	23,985	32,020	27,526	14.8	-14.0	260,902
직업능력개발훈련	19,217	27,215	23,132	20.4	-15.0	216,705
유급휴가훈련	977	928	547	-44.1	-41.1	7,177
수강지원금	1,785	2,387	2,236	25.3	-6.3	22,790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	2,007	1,490	1,612	-19.7	8.2	14,231

주: 1) 정부에서 위탁한 사업의 지원실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일반회계 등을 포함하는 타기관의 통계수치와 다를 수 있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2년 9월 고용보험통계 현황. 11/11

(작성: 정재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